

#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과 감염윤리학

정세근 (충북대 철학과)

코로나19도 스페인독감, 에이즈, 에볼라, 신종플루처럼 지나가는 것일 수 있다. 백신만 나오면 일단은 끝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시국이 보여준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는 국경이 더 이상 큰 역할을 못한다는 데 있다.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나라는 실익도 있었지만 한국처럼 방역의 모범국이 되지는 못했다. 한국은 적지 않은 국민의 반대에도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채로 방역을 이끌어나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인간의 박약함은 육체에서만 아니다. 쉽게 정신적으로 동요되는 우리의 모습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타인혐오, 인종차별, 계급격차, 연령차이, 종교집회, 개인정보공개 등을 꼽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보자.

가. 타인혐오: 타인은 보균자로 취급된다. 타인이 무섭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타인은 숙주(宿主; host)다.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타인은 죄인이 된다. 마스크는 자기보호를 넘어 타인에 대한 예의이고, 예의를 넘어 공중도덕을 가장한 묵시적 강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장년 남성층에 대한 세대적 공분도 눈에 띈다.

나. 인종차별: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유럽에서 중국인에 대한 배척을 넘어 전반적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했다. 유럽에 있던 한국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극우의 모토가 전염병의 유행과 더불어 비정상적으로 힘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거나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중국,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에 대한 편견이 귀에 들린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래?’

다. 계급격차: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의 구분은 이렇다. 제1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The Remotes)으로 35%의 노트북 노동자이고, 제2계급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사람’(The Essentials)으로 30%로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인, 운전기사, 공무원(경찰 등)이고, 제3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The Unpaid)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고, 제4계급은 ‘잊힌 사람’(The Forgotten)으로 격리되어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제4계급은 아감벤이 말하는 주권은 있지만 법의 효력이 정지된 예외상태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다시 말해 원의 그대로 희생(犧牲)으로 바쳐지는 사람(희생인犧牲人)과 다르지 않다.

라. 연령차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취약층은 노인이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노인 또는 기저질환자에 집중된다. 그런 점에서 요양원과 같은 노인집단시설의 감염은 말 그대로 치명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갈 때가 된 분들인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옳을 수 있는가? 의료보험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미국의 경우, 노인과 빈민층과 노숙자의 전염 문제가 음모론적으로 접근되기도 한다.

마. 종교집회: 한국의 경우 종교집회가 계속적으로 전염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주로 기독교 계열에서 말하는 일요일예배가 참여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방정부의 집합제한명령 속에서도 버젓이 행해졌다. 신천지라고 불리는 기독교 신흥세력이 가져다준 전염의 위력은 무서웠다. 결국 총회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

다. 종교집회가 갖는 여러 기능과 의미 때문에 정부도 접근을 어려워했다.

바. 개인정보공개: 한국은 법에 의해 철저히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주소와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모든 신상이 허락 없이 공개될 수 없다. 그러나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감염자의 활동 내역이 이름은 없더라도 모두 공개되었다. 감염자의 직업과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어쩔 수 없듯 취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동성애자의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졌고, 정부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감염자들이 자진 신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시절에 우리 인문학자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타인혐오, 인종차별, 계급격차, 연령 차이, 종교집회, 개인정보공개 등의 문제를 철학적, 문학적, 역사적, 언어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심각하게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자기보호 또는 공동체보호를 위한 타자혐오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인종차별을 하게 되는 문화적 동기와 그 해결책, 1:99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공분, 연령에 따른 세대적 역할과 가치에 관련된 의사소통, 감염병 시대에 종교집회의 의미와 이후의 향방 등 고민할 것이 많다. 이는 각기 사회적 정의(正義), 문화적 포용성, 경제적 불평등, 가치관의 변화, 종교적 의례와 실천이라는 문제를 윤리적 논의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코로나윤리학 곧 감염윤리학이다.

감염윤리학에서는 국경이동의 개방성과 폐쇄성, 세계시민으로서 마스크와 시약(키트) 원조 의무, 국가 간의 공조와 국가보호주의, 강대국의 백신독점에 따른 인류의 고통, 백신 개발에 따른 지적 재산권의 개방(open sources),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종교집회의 개인적 신앙심과 집단적 위협요소의 조화, 개인정보공개의 공익성, 인권의 천부성과 사회성, 인류에 대한 전반적인 배려와 보편적 조치 등이 다뤄진다.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운동으로 많은 대학이 약10%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온라인 강의를 제 가격으로는 치지는 못하겠다는 젊은이들의 요구를 존중한 결과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반복학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교수들의 온라인 또는 의무근무시간(office hour)에 1:1 질문과 토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다.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공지능(A.I.)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드러난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 중국은 찬성 일변도다. 미국을 이기기 위한 긍정적 출구전략임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인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많은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대세를 쉽게 거스를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인문학자는 라이시의 분법에서 제1계급이지만 여전히 제3, 4계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sgjeong@cbu.ac.kr](mailto:sgjeong@cbu.ac.kr))